

투데이 칼럼

우리나라에서의 구속수사

우리나라에서의 구속수사는...
우 리나라에서의 구속수사
는 것은, 첫째로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
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수사할 필요
가 있을 경우 행해지는 것을 의미
한다. 물론 첫째로 기능만이 존재한
다면 매우 훌륭하겠지만 안타깝게
도 우리나라에서 구속수사는 일종의
징벌적 기능도 수행한다. 사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형벌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무슨 일만 발생하면 여기저
기서 구속하라는 이야기들이 빗발
치게 마련이다.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때문에, 구속은 늘 그 사유와 필요
성 등의 요건을 면밀히 갖추어 시
행되지 않으면 그저 정치적 필요성
에 의해 휘둘러지는 '괘씸죄' 의 처
벌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구속은 늘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여 피의자가 구속으로 겪을
어려움과 국가가 피의자를 구속하
여야만 하는 적극적 필요성을 비교
형량 하도록 되어 있다. 법 감정 또
는 정치적 감정으로는 특정 누군가
가 천하의 죽일 놈일 수 있지만 제
도는 그리 운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 혐
의의 상당한 소명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근거로 발부된 정경심 교수

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현재 1심
이 진행중인 표창장 사건에 대해
공판기일 당일까지 증거목록도 제
대로 제출하지 않아 빈축을 산 작
이 있다. 그렇다면 별건으로 구속을
추진한 사모펀드 등의 건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소명자료를 확보했
다고 그저 믿어 주어야 하는 것인
가? 잘 모르겠다.

영장의 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
의 기본권과 국가가 확보하는 공익
성 간의 적절한 비교가 이루어졌는
지도 다소 의문이다. 진단서 관련
논란이 여전히 있다고는 하지만 정
경심 교수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사실은 이제 온 나라 사람
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참고인
들을 자주 접촉하여 증거인멸의 우

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검찰이 이미
저인망식으로 정경심 교수의 주변
인들을 모두 훑어갔으며, 조서가 증
거능력을 지니는 마당에 검찰은 그
조서들로 정황을 입증할 수 있음에
도 굳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적용했
었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때문에,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들
이 혐의의 충분한 소명에 불충분했
기 때문에 정 교수의 증거인멸 우
려를 적용하여 건강상태가 나쁜 그
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모순이 생긴다. 피의사실의 명
확한 소명이 불충분한 상황에서의
구속이므로 무죄 추정을 무시할 만
한 사실관계가 성립했는지 의문이
기 때문이다. 수사를 제대로 해서
참고인과 피의자의 접촉에도 불구
하고 혐의가 명백히 소명됐다면 몸
이 아픈 사람을 굳이 구속할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컸는가의 문제
가 있다.

정 교수의 무결함을 주장하고픈
것이 아니다. 구속의 대상이 그 누
구이건 공권력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명확하고 적절한 사
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뿐이다. 국정농단 사건 때와 이명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또 비교하
며 반박을 시도하는 분들이 계속
수도 있는데, 그 때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시면 아마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실 것이다. 구속과
같은 제도는 징벌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최근 임은정 부장 검사
가 "법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지 못
한다. 공수처 입법을 도와 달라."
고 국회와 시민사회에 읍소했지만
국회 입법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형국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를 압박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끄덕
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 역시 마찬
가지다.

검정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바로 검
찰의 무소불위를 분산시킬 필요성
때문이다. 이는 법치주의에 살아갈
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설

농수산식품의 수출 증가 전국 평균 4배

전북도가 오랜만에 밝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농수산식품의 9월
수출 증가가 지난해 같은 때와 비
교해 15.6%나 올랐다.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이 4.0%이니 거의 4
배가 된다. 그리고 수출 증가율의
전국 순위에 있어서도 전남의
17% 증가와 경북의 15.8%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이것은 기업을
토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이대로 꾸준히 나가면 올해
목표했던 수출액을 무난히 달성
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밝은 소
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밝은 소식
에 고무되어 농수산 관계자들은
모두 힘내야겠다.

이창에 전북의 농수산 당국은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전북
도가 농정의 효과를 지난날에도
여러 번 발표한 바 있지만 그래도
민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농가
소득이 올랐지만 농민들의 경
기 체감은 예전 그대로이다. 이같은
사실은 전북도의 농정이 더 욱
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다 농촌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도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농촌
에 해당되는 풍경은 아니다. 도내
농촌 인구가 늘지 않고 있음이 그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농
촌 인구가 현상 유지라도 해주었
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전히 희망
사항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농업의 전망이 밝
다고 외쳐봤자 경쟁력이 없다면
말짱 헛것이다. 그러나 경쟁력이
훨씬 더 강화 된다면 미래가 밝을
터이다. 농촌 인구가 유출되는 중
에도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희망의 불
씨가 있다. 전북도의 농수산 브레
인들은 경쟁력을 위해서 계속 연
구해야 한다. 농수산식품의 수출
증가율의 급증은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전
북 대도약을 향한 농생명 R&D 전
락을 말해왔다. 도지사는 '사일이
모이는 농생명 산업'에 대한 포부
를 말하였다.

전북도는 9월의 증가세에 힘입
어 용기를 내야 한다. 농생명 산
업 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농업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다른
산업이 각광을 받는 시대라고 해
도 농수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야 한다. 물론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도 전북도는 농
생명 산업을 진작시키고 계속해서
도내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꾸
준히 홍보해 성과를 내야 한다.
도내 농수산인들은 제 값을 받음
과 동시에 소비가 활발하기를 바
라고 있다. 전북도가 경쟁력 강화
를 위해서 계속해서 뛰어주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용률 전국 최하위에서 벗어나야

도내 고용률이 여전히 저조하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마를 짚어
야겠다. 경제신호음이 늘 깜빡이
는 빨간불이니 그럴데지만 청년
실업률이 심각할 정도로 저조하
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다. 고용률 최저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두루
함께 고민해야겠다. 이 부끄러운
기록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난감한 나날이다. 정말이지 청년
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
을 강구해야겠다.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
도는 먼저 술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세를 많이 보
여줘야 한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
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
한 탓이지않나. 청년 취업률을 어
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시쳇말로 대략 난감이다.
전북도와 공공기관들은 현실을
보아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

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
야 한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
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
적은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
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북도가
과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이
반에 기준을 강화하니 전국의 비
정규직이 87만 명이라는 보도이
다. 그동안 숨어있던 50만 명이
드러난 것이다.

전북도는 얼마 같은 시간대 일
자리에서 허덕이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결혼이나 출
산 같은 장래 희망을 말하지 않고
있다. 청년 고용은 한두 번 시도해보
고 그만 둘 게 아니다. 일자리 창출
이며 고용 실적이 낮음에도 그럭저
럭 괜찮은 것처럼 호도하려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 일자리 창출이며 청
년 고용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
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그리고 공공
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
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
로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는 현실
앞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자재언

스미싱 피해 예방은 스스로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
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 주소
를 담은 문자 형태로 전송되고, 해당
주소 클릭 시 소액결제 피해 및 개인
및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내세워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
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되고, 특히
'보안강화' 와 '예금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사건연루, '수사
협조' 등으로 현혹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모조리 전자금융 사기
라고 보면 된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 수칙을 숙지하
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먼저, 스미싱 피해 예방 수칙으로는
출처가 미확인 문자메시지의 링크주소
(숫자열 포함)클릭 주의 하고,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제한(스마트
폰 보안설정 강화) 업데이트 및 실시
간 감시상태 유지(백신프로그램 설
치)해야 한다.
또한,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
러 상담원과 연결 소액결제 차단하거
나 제한하는 것이 좋다.
보안 등급 명목으로 요구하는 보안
카드번호 입력을 금지(금융정보 입력
제한)하고, 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전
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위와 같이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00마트 결제내역 확인하세요.', '국세
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세요.',
'000고객님 택배 도착했습니다.' 등
이런 스미싱 문자 유형에 주의하기를
바란다.
최혜진 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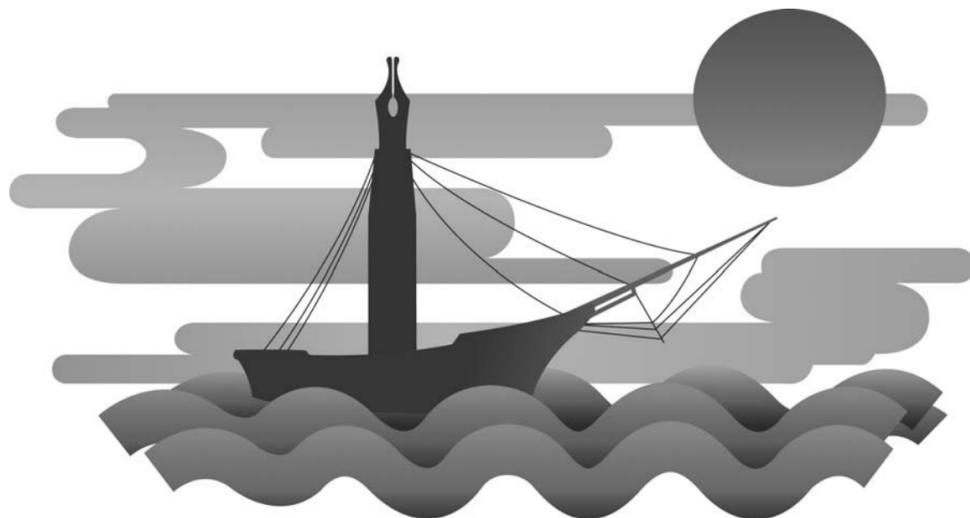
갯가지 초콜릿 의상 선보이는 모델들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초콜릿 패션쇼가 열려 모델들이 초콜릿 의상을 입고 무대를 걷고 있다. 이 패션쇼는 11월 3일까지 계속된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